

산업 신규 대출 30% 줄었는데... 대면 업종 대출금 세자릿수 ↑

1분기 광주 6039억·전남 2195억 예술·스포츠·교육서비스 등 증가 소상공인 부채 관리 '빨간불'

지난해 코로나19 여파로 산업 대출금 정점을 찍은 뒤 울어들어가는 신규 대출이 다소 누그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직격탄을 맞은 대면 업종은 전년보다 대출금이 늘어나 지역 소상공인의 부채 관리에 빨간 불이 켜졌다.

2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1분기 중 예금은행 산업별 대출금' 통계에 따르면 1분기 말(3월 말) 기준 가계대출을 제외한 모든 산업의 신규 대출금은 광

주 6039억원·전남 2195억원 등 총 8234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분기보다 30.2%(-3574억원) 감소했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는 41.4%(-4271억원) 감소하고, 전남은 46.5%(697억원) 늘어났다.

지난해 1분기 지역 산업 대출금은 광주 1조310억원·전남 1498억원 등 1조1808억원으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광주지역은 제조업 신규 대출이 지난해 1분기 2332억원에서 올 들어 1973억원으로 15.4%(-359억원) 감소하는 등 산업 전반에서 대출금이 줄었다.

제조업 가운데는 전기장비업종 신규대출이 전년보다 46.1%(-148억) 감소한 173억원을 나타냈다.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제품은 357억원에서 48

억원으로 무려 86.6%(-309억원) 급감했다. 금속가공제품 제조업(-20.1%)과 비금속 광물제품(-47.3%) 등도 큰 감소율을 보였다.

반면 대면수업이 주를 이뤘던 광주 교육 서비스업의 경우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아 전년보다 대출금이 17.8배 수준으로 불어난 107억원을 나타냈다.

정보통신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은 296.7%(89억원) 증가한 119억원을 새로 대출 받았고,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신규 대출은 284.6%(37억원) 증가한 50억원이었다. 운수 및 창고업(153.3%)과 인쇄 및 기록매체(129.4%), 가죽·가방 및 신발(100%),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84.2%) 등도 대출금이 크게 늘었다.

단 코로나19 회복세에 힘입어 소비 회복세를 보이는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107.1%)와 자동차 및 트레일러 업종(35.0%)도 시설자금 위주로 대출금이 증가했다.

거리두기 강화로 매출 급감을 겪었던 도·소매업 신규 대출은 1636억원에서 1112억원으로 32.0%(-524억원) 줄었고, 숙박 및 음식점업은 21.3%(-100억원) 감소한 370억원을 나타냈다.

전남에서는 공공행정 등 기타 서비스(357.7%),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219.4%), 건설업(158.7%),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115.1%),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100%) 등이 '세 자릿수' 증가율을 보였다.

도·소매업 신규 대출은 408억원으로, 지난해보

다 18.3%(63억원) 증가했다. 교육 서비스업(78.6%), 정보통신·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47.3%),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12.5%) 등도 대출금이 늘었다.

전남 숙박 및 음식점업 1분기 대출금은 지난해 358억원에서 345억원으로 3.6%(-13억원) 감소했다.

한편 1분기 말 기준 전국 모든 산업의 대출금은 1435조8000억원으로 지난해 4분기 말보다 42조1000원 늘었다.

증가 폭이 지난해 4분기(27조7000억원)와 비교해 14조4000원 급증했다. 하지만 전년 동기 대비 증가 폭은 전년 4분기 185조9000억원에서 올해 1분기 176조6000억원으로 줄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비대면의 힘' 광주은행 디지털금융센터 자산 1조 돌파

비대면 고객 서비스 4개월만에 1조원 돌파 기념 경품행사 진행

은행권에 부는 '비대면 바람'에 힘입어 올해 1월 신설한 광주은행 디지털금융센터가 자산 1조원을 넘겼다.

광주은행(은행장 송종욱)은 비대면 전용 고객관리를 위해 신설한 디지털금융센터의 자산 1조원 돌파를 기념해 경품행사를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 센터는 지난 1월 여·수신 종합상담과 디지털 영업 역량을 보유한 전문직원들을 배치해 신설됐다.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도 금융소비자에게 대면채널과 동일한 종합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비대면 추세에 따라 이 센터의 금융자산은 4개월여 만에 1조원을 달성했다.

센터는 광주은행 이용 고객을 디지털 거래 접수로 세분화하고, 고객의 특성 및 요구를 파악하고 있다.

전담직원을 배치해 맞춤형 금융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며, 상담 진행 때 비대면 채널을 통한 상품 가입 및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느끼지 않도록 실시간 응대한다.

광주은행 스마트뱅킹에는 'VIP상담예약서비스' 전용코너를 신설했다. 이 기능을 이용하면 우량 고객들이 전담직원과 수신·여신·결제·기타 업무에 대해 채팅, 영상통화, 유선상담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상담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실시간 상담뿐 아니라 예약상담까지 가능하다.

광주은행은 디지털금융센터 자산 1조원 달성을 기념해 선착순 경품 행사를 진행한다.

우선 '어서와 언택트로는 처음이지?'는 최근 1년 이내 비대면 채널로 예·적금에 가입하지 않은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월 10만원 이상 정액적립식

적금 또는 가입금액 100만원 이상 정기예금을 6개월 이상 가입한 고객 선착순 2000명에게 스티커박스 아메리카노 쿠폰을 제공한다.

'입출금 통장도 언택트로 함께!'에서는 광주은행 대출을 이용하는 고객 중 결제계좌를 다른 은행으로 설정한 고객이 광주은행으로 결제계좌를 변경할 경우 선착순 1000명에 커피 상품권을 준다.

행사 참여는 문자나 휴대폰 마케팅 등의 고객에 한하며, 요건 충족 때 자동으로 응모된다.

조정민 디지털금융센터장은 "갑수록 증가하고 있는 디지털 금융거래 수요에 발맞춰 비대면 고객이 쉽고 편하게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비대면 맞춤형 전용 상품 및 서비스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더불어 디지털 취약계층도 소외되지 않고 비대면 금융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도록 포용하며, 체계적인 고객관리에 힘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기아 '더 뉴 K9' 사전계약 돌입

기아가 3일부터 '더 뉴 K9' <사진> 사전계약에 돌입한다.

이달 출시 예정인 더 뉴 K9는 2018년 4월 K9 출시 이후 3년 만에 새롭게 선보이는 상품성 개선 모델로, 기아를 대표하는 플래그십 차량이다.

더 뉴 K9에는 차량의 내비게이션과 레이더, 카메라 신호 등을 활용해 전방의 가·감속 상황을 예측하고 최적의 기어단으로 미리 변속하는 '전방 예측 변속 시스템'을 세계 최초 적용하는 등 다양한 운전자 보조시스템이 탑재됐다.

방향지시등 스위치 조작을 통해 차로 변경을 도와주는 고속도로 주행보조2(HDA2)가 전 트림에 기본 적용됐고, 교차·측방접근 차량까지 대상을 넓힌 전방 충돌방지 보조, 후방 주차충돌 방지 보조 등도 탑재됐다.

기존 전·후진 주차 외에 기아 최초로 평행·직각 주차 기능까지 추가된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가 적용됐으며, 동급 최초로 지문 인증 시스템을 적용해 사용자가 저장해 놓은 지문을 통해 미리 설정해 둔 시트포지션 등이 자동으로 실행되도록



했다.

실내에는 14.5인치 초대형 와이드 디스플레이를 탑재하고 다이아몬드 커팅 패턴의 크기를 키운 통합 컨트롤러를 장착해 사용성도 높였다. 운전석과 후석 우측 좌석(VIP석)에 스트레칭 모드를 추가한 에르고 모션 시트를 장착했다.

사전계약은 3.3터보 가솔린과 3.8 가솔린 총 2개 모델로 진행된다.

가격은 개별소비세 3.5% 기준 3.3터보 가솔린 플래티넘이 6342만원, 마스터즈 7608만원이다. 3.8 가솔린은 플래티넘 5694만원, 마스터즈 7137만원이다.

/박기용 기자 pboxer@

전남 과실 공동브랜드 실무협의 농협 전남본부

농협 전남지역본부 2일 무안군 삼향읍 지역본부 4층 중회의실에서 '전남 과실 공동브랜드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브랜드 실무위원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올해 한파에 따른 과실 피해조사 및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도 단위 광역마케팅을 통한 온라인 판매망 구축 등을 모색했다.

과실 공동브랜드 '상큼'은 전남도와 전남농협이 2016년 공동개발한 도 단위 광역브랜드다.

전남농협은 단감·무화과·사과·만감류·배 등 5개 품목 재배농가 조직화를 통해 출하량 확대·출하품질 향상을 꾀해 지난해 판매액 130억원의 성과를 이뤘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회의 끝나고 일손 돕기 농협 광주지역본부와 광주 14개 지역농협 상임이사·전무는 지난 1일 광산구 동산동 운곡농장에서 '보이스피싱 예방 협의회'를 연 뒤 농촌일손 돕기를 벌였다.

한전, 에너지 플랫폼에 '신재생 거래 서비스'

한국전력은 에너지 분야 오픈 플랫폼인 에너지마켓플레이스(EN:TER)에 신재생에너지 거래 서비스를 지난 1일부터 신설 운영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에너지마켓플레이스'는 개인·기업에 다양한 에너지 서비스를 중개해 주는 에너지 분야 비즈니스 플랫폼이다. 에너지 효율화 및 전력 수요 관리 서비스를 연결해주는 '에너지신사업 마켓'과 전력데이터를 분석·활용해 비즈니스 창출을 도와주는 '에너지데이터 마켓'으로 구성됐다.

이번에 새로 여는 신재생에너지 서비스는 '마이발전소 서비스'와 '녹색프리미엄 입찰서비스'다. 마이발전소 서비스는 한전과 전력거래계약(PPA)을 맺은 1MW 이하 발전사업자 및 자가용

발전고객을 위해 마련됐다.

계약 이후 기간별 계약 발전량과 발전대금을 확인할 수 있고 신재생에너지 거래가격, 전국의 신재생에너지 전력계통 연계 현황 등의 정보도 확인할 수 있다.

/백희준 기자 bhj@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3224.23 (+2.36)
↓ 코스닥	981.10 (-3.49)
↓ 금리(국고채 3년)	1.206 (-0.007)
↑ 환율(USD)	1113.30 (+7.40)

엄마, 보고 싶어요

음주운전!
당신 자녀의 미래가 사라집니다.

만취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 최고 무기징역!

2018년 운창호범이 통과되면서 음주운전 적발 및 사고 시 처벌 수준이 대폭 상향되었습니다.